

2008. 5. 19 제191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5. 19 제191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문화·디자인

1. 옛 시청사를 복구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 (브라질 쿠리치바市)
2. '런던을 사랑해요' 페스티벌 (런던)
3. 문화수도의 '최고의 이웃'을 찾아라 (영국 리버풀市)

건강·복지

4. 버스에서 요리를? '요리버스' 건강전도사 등장 (베를린)
5. 장거리 산책로 완주하면 '완주 증서' 발급 (런던)
6. 걸어서 출근합시다 (런던)
7. 담배 연기 사라진 도시 만들기 (필라델피아)
8. 도민 건강 위해 의료비 적정화 계획 수립 (도쿄)

목 차

행정·재정

9. 광고사업 통해 市 자산 확보 (요코하마)
10. 전자정부의 첫걸음, '인터넷 예약제' 시행 (베를린)
11. '전자시청 추진계획' 중간 검토 (요코하마)
12.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위해 '커뮤니티 비전' 수립 (일본 센다이市)

방재·안전

13. 민간치안 위해 정부가 시민생활에 관심 가져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州)

도시환경

14. 100만 그루 나무 심어 푸른 도시 만들기 (뉴욕)
15. 민관학이 협력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런던)
16. CO₂ 줄이며 떠나는 '그린 여행 플랜' (스코틀랜드)
17. 새로운 '공해방지 계획' 수립 (도쿄)

도시교통

18. 지하철 타고 쇼핑하면 지하철 요금을 돌려줍니다 (교토)

도시계획·주택

19. '선행(先行)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도쿄)
20. 역사적 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법률 제안 (영국)

[벤치마킹 사례]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주요 내용>

○ 도쿄都는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들고자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사업을 추진 중임. 이 사업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자율 이동 지원 프로젝트¹⁾와도 연계돼, 2005년부터 도쿄都 우에노 지구와 아사쿠사 지구를 중심으로 실제 구현 및 체험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최신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 즐겁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전용 정보단말기인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터’(UC)를 가지고 긴자 지역을 돌아다니면, 목적지까지의 경로나 현 위치 주변 정보가 UC에 자동으로 표시됨.



1) 안내판과 교통표지, 점자블록 등에 위치 및 속성 관련 고유정보를 갖고 있는 IC 태그와 무선 및 적외선 통신기기를 설치한 후, 이용자의 휴대전화 등 휴대 단말기에 이동경로, 교통수단, 목적지 및 주변 정보, 긴급시 우회로, SOS 발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임.

- 이용자는 UC나 UC를 탑재한 전동 카트를 이용해 위치·관광·쇼핑 정보를 보면서 우에노 공원과 우에노 동물원을 돌아본 후, 체험 설문조사에 응함.
-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며, 사전에 유비쿼터스 체험을 신청하면 UC를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는 관광이나 상업 진흥 등에 관한 도쿄都 시책과 국토교통성이 주최하는 자율 이동 지원 프로젝트 추진 검토에 활용됨.



UC를 이용한 우에노 공원 및 동물원 체험

<해설 및 평가>

- 유비쿼터스 기술이란, 장소와 물체에 유일 식별자인 'ucode'를 붙여 컴퓨터 및 정보단말기가 자동 인식함으로써 현실 세계와 가상(Virtual) 공간을 연결하는 최첨단 기술임.
- ucode는 물건이나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 객체마다 주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고유 ID임.
-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센터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ucode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쇼핑, 관광, 음식점 등 주변의 위치 정보와 더불어 지역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ucode와 GPS 연계가 필요함.
- 긴자 윤초메 교차점을 중심으로 1000~2000개, 1년 후에는 1만 개의 ucode를 설치할 계획임.

- 유비쿼터스 기반 서비스 외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포함한 상점 및 음식점 정보, 지도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동 경로에 따라 검색한 다양한 위치 및 지역정보를 통합센터 서버에 보존할 수도 있어 e-커머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유비쿼터스 계획

- 서울시는 2006년 ‘u-Seoul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첨단지능형 도시 모델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설계해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계천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테스트베드(Test Bed: 광통신 부품이 시스템 내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시스템) 사업이 진행 중임.
- 유무선 통합망, 3차원 기반 GIS, 통합운영 플랫폼 등 기반 인프라 기술 검증 및 응용서비스 표준안 마련과 청계천 전역의 생태문화 서비스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청계천에서의 유비쿼터스 구현에 있어,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다양한 사용자 편의서비스 제공
 - 어떤 단말기이든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원패스카드, u-쿠폰, 미아방지, u-Art Tour, RFID 시범 사업 등이 무선인터넷 기반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위치정보는 GIS 데이터와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기존의 GIS를 얼마나 잘 연계하는지가 핵심임.
 - 디지털 지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도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민 참여를 통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 도쿄都가 수행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체험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돼 도쿄의 정책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서울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적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서울 관련 서비스 콘텐츠를 시민이 직접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벤치마킹 기대효과>

-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첨단도시 이미지를 고취하고,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청계천이나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장소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의 앞선 모습을 홍보하고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석민 기획조정실 연구위원(lsm@sdi.re.kr)

1. 옛 시청사를 복구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1916년에 건설돼 42명의 전직 시장 및 내각이 사용한 바 있는 옛 시청 건물을 복구작업하면서 市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음.

- 복구 작업은 시정부와 파라나州 상업연맹, 파라나 상업사회서비스와 협력해 진행함.

·그동안 시청 건물은 건축자재 파손 및 부적절한 공간 사용으로 인해 훼손됐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훼손도 있으나, 제대로 유지·보존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됨.

- 市는 이번 복구작업을 통해 시민이 市 역사를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市 유산이 문화 중심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661)

>>> 전문가 검토의견

- 옛 유적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은 예전부터 진행돼 왔음.

·런던市의 테이트 모던 박물관과, 게이츠헤드市의 볼틱 미술관, 요코하마市의 벵크아트 등 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음.

·서울시도 근대건축물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정부 수반 유적을 복원하는 한편, 시청사도 그대로 활용해 서울 대표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임.

-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은 도시의 문화적 재생이란 이름과 더불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 또한 과거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2. ‘런던을 사랑해요’ 페스티벌 (런던)

○ 2008년 6월 3주간, 제6회 ‘런던을 사랑해요’(Love London)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임.

-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과 지역 조직의 활동을 좀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해 런던市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함께 가꿔나가자는 취지임.

- 시민이 직접 준비한 100여 개 프로그램이 런던市 곳곳에서 진행됨.

·캠든 녹색시장, 환경친화 상품에 대한 대규모 전시행사인 ‘Green Show at Olympia’, 녹색 자동차 경주대회 등 대형 행사도 준비됨.

- 행사를 주관하는 ‘런던 21 지속가능네트워크’는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위해 언론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행사 준비 및 재정 지원 등 제반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임.

(www.london21.org/page/36/show/1385)

3. 문화수도의 ‘최고의 이웃’을 찾아라 (영국 리버풀市)

○ 2008년 유럽연합 문화수도로 선정된 영국 리버풀市는 문화수도 담당조직인 ‘리버풀 문화주식회사’(The Liverpool Culture Company)와 함께 ‘최고의 이웃을 찾아라’ 행사를 개최함.

- 시민이 지역사회 정신을 손수 실천하는 이웃을 후보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정함.

·영국에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반사회적인 행동 방지,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등 다양한 측면이 수 상기준에 반영됨.

·선정된 이웃은 2008년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퍼레이드 행사에 VIP로 초대될 예정임.

- 1999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유럽연합 이웃의 날’은 매년 5월 27일 28개국 약 750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문화행사임.

(www.liverpool08.com/News/Archive/2008/March/GoodNeighbours.asp)

건강 · 복지

4. 버스에서 요리를? ‘요리버스’ 건강전도사 등장 (베를린)

○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는 2008년 4월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에 음식을 제공하는 ‘요리버스’를 선보임.

- 베를린市 한 택시회사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낡은 2층 버스를 현대식 요리 버스로 개조함.

·이 버스는 향후 아동시설에 음식을 제공하며, 아이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조리하는 법을 배우고 직접 시식하는 경험을 하게 됨.

·버스에는 부모와 유치원 선생님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 섭취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비치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4/21/98942/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요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도 베를린시의 이동 요리버스 아이디어 도입을 고려해도 좋을 듯함.
- 이동 요리버스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로 찾아가 요리를 시연하고 좋은 식습관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 조리시설이 없는 복지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이동 요리버스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시가 이동 요리버스 사업을 할 경우, 좋은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신경희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ee@sdi.re.kr)

5. 장거리 산책로 완주하면 ‘완주 증서’ 발급 (런던)

- 런던시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걷기 정보와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Walk London’이 장거리 산책로를 완주한 시민에게 증서를 수여하기로 함.
- 현재 런던시에는 도심, 템스강변, 외곽지역 등 도시 전역에 걸쳐 총 530km에 달하는 6대 장거리 산책로가 있음.
- 초장거리 순환 산책로인 ‘Capital Ring’(125.5km)과 ‘London Loop’(241.4km)를 비롯해 중장거리인 ‘Lea Valley’(80.5km)와 ‘Thames Path’(107km), 상대적으로 짧고 도심 문화시설을 연결한 ‘Jubilee Walkway’(22.5km), 남동부 녹지 순례인 ‘Green Chain’(65km) 등이 있음.
- 시민이 걷기 주제와 여유시간,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
- ‘Walk London’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산책경로 정보지를 내려받을 수 있고, 3개까지 무료로 우편 주문할 수 있음.
- 산책로를 완주한 시민이 경험담과 산책 시 찍은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면 완주 증서를 받을 수 있음.



장거리 산책 완주 증서

(www.walklondon.org.uk/walks.asp)

(www.walklondon.org.uk/latest_news_detail.asp?News=50)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의 '도시순환 산책로 종주증서 발급사업'은 보행을 활성화하고, 런던을 찾는 여행자에게 런던의 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이 사업은 잘 관리되고 계획된 산책로 구축이 선행돼야 가능하므로, 사업수행 이전에 실시돼야 하는 사업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도 남산순환로, 역사문화탐방로, 한강 및 지천변 산책로, 청계천로와 같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음.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런던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사업을 펼친다면, 보행도 활성화하고 관광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신혜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한줄 뉴스

- 로스앤젤레스시, 2008년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시내 곳곳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 무료 제공
- 일본 아이치縣, 대규모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환경 배려 정도를 평가하는 캐스비(CASBEE: 건축물 종합 환경성능 평가시스템) 제도 실시

6. 걸어서 출근합시다 (런던)

- 런던 교통공사는 교통문화 개선 민간단체인 'Living Streets'가 주최하는 '걸어서 출근합시다'(Walk to Work Day) 행사를 지원함.
 - '기분도 몸매도 건강도 모두 좋아집니다'(Feel fitter, Look Better, Live Longer) 라는 표어 아래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걸어서 출근하는 날' 선언임.
 - 행사 홈페이지에 스스로 30분은 걸어서 출근하겠다고 간단히 등록함으로써 나홀로 걷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음.
 - 좀더 걷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경우 4주 동안 도보 출퇴근 기록표에 도보 여정을 기록해 제출함.
 - Living Streets는 개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단체로 참여할 경우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과 기업, 각 구청 등 대상마다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음.

‘걸어서 출근하는 날’ 참여 등록양식

(www.walkingworks.org.uk)

(www.tfl.gov.uk/gettingaround/walking/4868.aspx)

>>> 전문가 검토의견

- 웰빙이 화두가 되면서 서울시도 걷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걷는다는 것을 통해 수단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보행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런던市的 사업도 그 중 하나임.
- 보행이 단거리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런던市와 같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주도해 실행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행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신혜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7. 담배 연기 사라진 도시 만들기 (필라델피아)

- 필라델피아市는 시민의 금연과 공공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증진하고자 市 공공보건국의 주도로 금연 프로그램(Smoke Free Philly)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에게 흡연의 폐해를 일깨워 주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시정부 만성질병 예방부서의 사업으로, 1998년 미 전역 46개 주정부와 담배제조회사와가 협약한 '1998 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해 펜실베이니아州 보건국이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폐암 등 흡연으로 인한 부작용 홍보
 - 담배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청소년층 흡연기회 차단 홍보
 - 홈페이지에 금연 수기 및 부작용 사례 등을 게재해 흡연자의 금연 의지 고양
 - 시민의 건강 증진
 - 모든 업무 공간, 학교, 스포츠 시설,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흡연이 법으로 금지돼 있음을 알리는 데 주력

- 市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층의 흡연율을 낮췄고, 금연이 임산부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으며, 금연으로 폐암 발생 억제와 가정 내 어린이의 간접흡연률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홍보하고 있음.

(www.smokefreephilly.org)

(www.cleanair.org/IndoorAir/tobacco/tobaccoHome.html)

8. 도민 건강 위해 의료비 적정화 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해, 2008~2012년 ‘도쿄都 의료비 적정화 계획’을 수립함.

-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의 현저한 증가로 지속가능한 의료 구조 및 제도 개혁이 필요함.

- 20년 후에는 도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것으로 예측됨.

- 국민 의료비는 2005년 현재 33.1조 엔(약 320억 원)으로 과거 최고액이며 국민소득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계획은 모든 도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도민의 건강’으로 함.

- 양질의 의료 서비스 체제 확립, 개호 서비스(고령자·장애자 서비스) 기반 확립 등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의료비 적정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 요양소의 병상 수, 평균 입원일 수 등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목표를 제시함.

- 의료비 적정화 대책으로는 생활 습관병 예방, 의료 제후체제 및 지역 케어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8/03/70i3s500.htm)

9. 광고사업 통해 市 자산 확보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4년 광고사업을 시작함.
- 市는 광고사업을 ‘요코하마市가 소유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광고, 판매 촉진활동, 공동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경비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의함.
- 광고지, 팸플릿, 전단지, 각종 봉투 등 인쇄물 광고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
·시립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에도 광고를 싣고 있는데, 매월 배부된다는 점에서 광고주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 市는 웹페이지에 배너광고도 게재하고 있음.
·배너광고는 도입 초기 일부 웹페이지에 한정됐으나, 지금은 각 局이 권장하는 웹페이지에 광고를 적극 게재함.
·배너광고료는 비교적 쌀 뿐 아니라 시민과 좀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청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세무사 등 관련 업종의 호응을 많이 얻고 있음.
- 요코하마市 소유의 지하도, 철도역 부대시설, 시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광고간판 등을 설치해 광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요코하마市는 광고사업 전개를 통해 기업과의 연대 폭도 넓어지고 있음.
·市가 단독으로 발행했던 소아 응급대처 팸플릿을 육아 전문잡지 발행과 육아 교육사업을 하는 기업과 연대해 발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기업이 가진 노하우를 활용했다는 호평을 받음.

(www.city.yokohama.jp/me/keiei/kyoso/ad)

>>> 전문가 검토의견

-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광고 유치사업을 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요코하마市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 정도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사업에 나서고 있음.
 - 요코하마市의 광고수입은 2006년 1억 4000만 엔(약 14억 원) 정도임.
 - 공보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공용차, 시립병원 영수증, 도서관 대출증, 도로 표지판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유·무형 자산에 기업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광고 수입 외에도 시민에게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정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장무경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10. 전자정부의 첫걸음, ‘인터넷 예약제’ 시행 (베를린)

- 베를린市 내무부는 시민에 봉사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인터넷 예약제’(E-Appointment)를 실시함.
 - 주민은 인터넷에서 행정 서비스 이용날짜를 예약한 후 바로 온라인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우편으로 예약확인증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관련 내용을 통보받을 수도 있음.
 - 시민 스스로 선택한 예약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4/24/99306/index.html)

11. ‘전자시청 추진계획’ 중간 검토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2003년 3월 ‘전자시청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 시민, 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전자시청 추진 간담회’를 설치·운영해 왔음. 市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전자시청 추진계획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를 재검토함.

- 기존 전자시청 추진계획의 기본 시점 3개에, 정보 자산 낭비를 없애고 최대한 활용해 적절한 코스트 퍼포먼스(Cost Performance: 비용과 기능을 비교) 실현을 추가함. 기존의 기본 시점 3개는 다음과 같음.

- 시민이 시정에 참가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동하며, 시민의 관점에 선 행정 실현
-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민이 실제로 편리하다고 실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실현
-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

- 이번 중간 검토를 통해 전자시청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유의점을 정리함.

- 현재 PC 보급률은 80%로, PC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시민이 전자시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화나 대면 접수창구를 통해서도 동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해하기 쉬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이들을 배려한 전자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강습회 등을 통해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IT 활용력을 향상하도록 도움.
- 전자 시청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전자시청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함.
- 전자 시청 시스템은 간편하고 신속한 반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항상 외부에서 해킹의 위협에 처해 있음.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코하마 정보 시큐리티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확실한 개인정보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 함.

(www.city.yokohama.jp/me/gyousei/it/ecity/ecity_plan/new/download.html)

12.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위해 ‘커뮤니티 비전’ 수립 (일본 센다이市)

- 일본 센다이市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 행정기관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기대 역할을 성취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센다이市 커뮤니티 비전’을 수립함.
 - 커뮤니티 비전은 지역과 행정기관이 이념을 공유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임.
 - 자녀양육과 교육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어, 지역 주민 간 교류와 상호부조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
 - 지역단체 가운데는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어려운 단체도 늘고 있고, 공공시설 또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실정임.
 - 커뮤니티 비전이 제시한 4가지 바람직한 커뮤니티 상은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열린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커뮤니티, 이념을 공유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공생 규칙을 가진 커뮤니티임.
 - 지역 커뮤니티 구축방안으로는 인재 발굴과 육성, 지역정보 공유, 지역자원 활용, 매력있는 사업 기획과 실시를 들고 있음.

(www.city.sendai.jp/shimin/ti-katsudou/com/index.html)

한줄 뉴스

<브라질>

- 쿠리치바市, 테크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2008년 4월 22~24일 ‘제1회 기술혁신 이벤트’ 개최
- 리우데자네이루市, 지난 1년간 1만 6000여 명이 ‘장애인 이송 특별 택시 서비스’ 이용

방재 · 안전

13. 민간치안 위해 정부가 시민생활에 관심 가져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리우데자네이루市는 2002~2007년 산업, 서비스, 관광 분야에서의 민간치안 비용으로 287억 헤알(약 14조 4000억 원)을 지출함.
 - 리우상업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안 명목으로 지난 6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음. 하지만 정확한 민간 치안요원 수는 파악되지 않았고 단지 경비원 임금과 치안설비 구매 및 관리비만을 계산한 것임.
 - 9개 대도시권 70개 도시에 살고 있는 16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가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가 시민의 생활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함.
 - 26%는 경찰 교육, 처벌규정 및 교도소 치안 강화 등 공공치안 강화를 듦.
- (www.estadao.com.br/cidades/not_cid158038,0.htm)

도시 환경

14. 100만 그루 나무 심어 푸른 도시 만들기 (뉴욕)

- 뉴욕市 공원관리과는 2008년 4월 한 달 간 시민을 대상으로 ‘100만 그루 나무 심기’(Million Trees NYC) 행사를 열. 이 행사의 목표는 2017년까지 뉴욕 시내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임.
 - 뉴욕市는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통해 수목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Think Globally Plant Locally’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신선한 공기, 대

- 기오염 감소, 질병 예방, 휴양림 및 시민 편의시설 제공이 장기 목표임.
- 뉴욕市와 뉴욕 복원 프로젝트에서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도 출연금을 내놓고 있음.
- 출연금으로 마련된 나무 중 가로수로 22만 그루, 공원 및 공공지에 38만 그루 등 60%를 뉴욕 곳곳에 심을 예정이며, 40%는 각 커뮤니티, 시민단체, 개인 등에 지원해 사유지에 심을 계획임.
- 2008년 4월 1일부터 시민과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묘목 기증을 받고 있으며, 1만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음.

(www.milliontreesnyc.org/html/home/home.shtml)

15. 민관학이 협력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런던)

- 런던개발청, 사우스뱅크 경영자협회, 사우스뱅크 대학은 파트너십을 맺고 도심 템스강 남쪽에 위치한 사우스뱅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함께 줄이기로 합의함.
- 사우스뱅크 지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에너지 소비유형을 파악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소비 절감, 지역에너지 공급, 바이오매스 발전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양을 절감해간다는 계획임.
- 사우스뱅크 지역은 과거 물류창고 및 낙후 주거시설이었으나 도심과 가까운 거리라는 이점과 함께 본격적인 도심 재개발 사업이 이뤄져 새로운 주거·상업 복합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다양한 토지 이용과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는 사우스뱅크 지역의 에너지 이용 변화와 유형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안관리 정책을 도입·검토함으로써 지역별 기후변화 통합관리 모형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549)

16. CO₂ 줄이며 떠나는 ‘그린 여행 플랜’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 국가 교통청(National Transport Agency)은 영국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그린 여행 플랜’(A Green Travel Plan)을 발표함.

- 그린여행플랜의 목적은 교통청 직원이 출퇴근하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임.

·현재 교통청 직원의 80%는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보행으로 출근하고 있음.

- 교통청은 자동차, 비행기, 철도 여행을 줄여 앞으로 2년 동안 ‘이산화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연간 8% 낮추려는 계획을 세웠음.

·이는 비행기 1대가 지구를 6번 도는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임.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801721/Transport-Scotland-launches-green-travel-plan/?DCMP=EMC-DailyBulletin)

17. 새로운 ‘공해방지 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8차 ‘도쿄 지역 공해방지 계획’을 수립함.

- 공해방지 계획은 공해가 많은 특정 지역에 대해 환경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해 수립한 법정 계획으로,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책은 다음과 같음.

·대기오염 및 도로 교통소음 대책: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 저공해차 보급 촉진, 공장 및 사업장의 지역 냉난방 추진, 도로 구조 및 교통관제 시스템

- 의 고도화, 입체 교차로 조성 등 교통 원활화 대책
- 하천의 수질 오염 대책: 하수도 정비나 합병 처리 정화조 설치 촉진 등 생활배수 대책, 수질 악화나 악취의 원인이 되는 슬러지 준설 작업 등 하천 정화 대책, 자연 및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하천 녹화나 산책길 정비
- 도쿄만의 수질 오염 대책: 하수도 정비 및 생활배수 처리의 고도화, 운하부의 슬러지 준설이나 복토 작업 등 도쿄灣 환경 개선 추진
- 시가지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대책: 유해 물질의 지하 침투를 억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토양오염 처리 기술 포럼 개최, 저비용 처리 기술 도입 촉진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전개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8/03/70i3v100.htm)

도 시 교 통

18. 지하철 타고 쇼핑하면 지하철 요금을 돌려줍니다 (교토)

- 교토市는 상점가 합동 회사인 ‘교토와 정보 카드 시스템’(KICS)과 연대해 지하철 이용 촉진, 산업 진흥, 이산화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레일&쇼핑 in 교토’를 실시함.
 - ‘교토 플러스 OSAKA PiTaPa’로 지하철을 타고, 같은 날에 KICS 가맹 점포에서 쇼핑을 하면 당일에 이용한 지하철 요금의 일부나 전액을 ‘KICS 에코 포인트’로 이용자에게 환원해 줌.



교토 플러스 OSAKA PiTaPa

도시계획·주택

19. ‘선행(先行)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도쿄)

○ 도쿄都是 오타區에 있는 약 1만 9960㎡의 도유지(都有地)를 활용해 ‘선행(先行)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입지 특성을 살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세대가 모여 사는 매력 있는 마을을 만들 계획임.

－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새로운 녹지 공간이나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해 환경을 배려한 공간을 형성하고 시설 계획을 통해 환경 부하가 적은 프로젝트를 실현함.

·어린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세대가 건강하게 모여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지역 생활을 지지하는 거점 형성과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 실현임.

·높낮이 차이가 있는 지형을 살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만들고 새롭게 조성된 오픈 스페이스 등을 활용해 지역에 개방된 방재 기능을 확보하는 것임.

－ 도유지를 활용한 민간 프로젝트를 통해 ‘10년 후의 도쿄’에서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지역별 과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8/04/70i4i100.htm)

한줄 뉴스

<영국>

－ 환경보존을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 검토

－ 어린이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2억 2500만 파운드(약 4500억 원) 투자 계획

20. 역사적 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법률 제안 (영국)

- 영국 문화부장관은 최근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법령’(Heritage Bill) 초안을 발표함. 이는 역사적인 건물이나 장소 관리 및 보호에 있어 복잡한 과정을 해결하려는 시도임.
 - 문화유산 분류, 등록, 계획 업무가 그동안 분산돼 있었는데 이를 문화유산등록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임.
 - 기존 시스템에서는 건물, 공원, 기념물이 각각 다른 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어 혼란이 있음.
 - 문화유산 관련 도시계획 신청에 있어 많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적 유물 동의’(Historic Asset Consent)를 제안함.
 - 역사유적이 포함된 대규모 개발지역 재정비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파트너십 동의’(Heritage Partnership Agreements)를 제안함.
 -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영국문화유산재단(English Heritage) 협상을 통해 반복적인 허가과정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영국문화유산재단은 문화유산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간략화된 법령 정비는 공공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99783/Shake-up-heritage-protection-laws-unveiled)